

민족사에 특기할 기적적 승리를 안아오신 불멸의 영도

건설의 대번영기를 펼치신 창조의 거장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건설의 대번영기, 그것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웅대한 구상과 비범하고 무한한 창조의 세계가 안아온 역사의 기적이다.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강산이 변하는 시대를 펼치시어

위대한 창조는 이 땅을 참으로 놀랍고도 눈부시게 전변시켰다. 역사의 갈래갈래를 더듬어보면 남다른 창조적재능과 활동으로 사회역사발전의 공헌한 위인들의 전기와 수많은 새겨져있다. 그러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만난시련을 강행돌파하시며 세기적인 전변을 안아오는 결솔한 영도자의 창조실록은 찾아볼수 없다. 인간으로서의 상상조차 할수 없는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단 순히 개조가 아니라 모든것을 시대의 높이에서 세계적인 본보기로 일신시키며 남들이 엄두도 내지 못하는 거대한 전변을 안아오는 전인미답의 위대한 창조 실록을 써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어가시는 창조의 자욱자욱을 따라 날에 날마다 기념비적건축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고 나라의 곳곳마다 사회주의선경이 펼쳐지고있는 공화국의 현실이다. 언젠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는 건설에서 인민대중제 일주의를 구현하여 주체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민족성과 현대성을 융계 결합시키며 세계적수준을 통과하고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는 기념비적건축물들을 비상히 빠른 속도로 일떠세워야 한다고, 이것은 건설에서 우리가 견지하여야 할 기본원칙이며 주체적건축사상의 근본핵이라고 밝혀주시었다. 현시대의 주체건축의 본질과 특징, 목표와 방향을 뚜렷히 밝힌 이 말씀에는 이 땅에서 건설의 최전성기가 어떻게 펼쳐지고 대번영기가 무엇으로 마련되는가에 대한 훌륭한 대답이 담겨져있다. 주치의 사실이지만 이 땅에서 건설의 대번영기를 펼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영도밑에 인민을 위한 기념비적건축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올라 세인의 경탄을 자아내이고있다. 언젠가 브라질의 어느 한 신

문사 사장이 웨브사이트에 미래 과학자거리와 과학기술전당,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찍은 수십장의 사진들을 실으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에 일떠선 건물들이라는 해설글을 올리자 모든 가입자들이 《상상을 초월한다》,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황홀하다》고 하면서 저저마다 놀라움과 경탄을 표시하였다. 그들은 아니었다. 공화국을 방문하였던 외국 한 인사는 이렇게 말한바 있다.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최상급의 스키문화를 누리려고 지경밖으로 나다닐 때 공화국인민은 제방에 솟아난 마식령스키장에서 초급, 중급, 고급주로를 따라 마음껏 눈갈기를 날린다. 수도 한복판에 바다물을 끌어다놓고 곱든어교를 관광하는가 하면 엘도라도식 물놀이장에서 어른, 아이 할것없이 물보라속에 잠겨 행복에 웃고 떠든다. 다른 나라 같으면 상류층들이나 할수 있는 승마운동의 주인공들도 이 나라 인민이 집값도 집세도 모르고 희한한 살림집을 쓰고사는 사람도 바로 공화국인민들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펼치신 건설의 대번영기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공화국인민이 정말 부럽다.》 옮은 말이다. 김정은시대에 조선은 참으로 많이도 변했다.

어제와 오늘,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강산이 변하는 건설의 대번영기와 더불어 이 나라 인민들의 삶도 변화하였다. 불과 몇년이라는 그처럼 짧은 기간에 일떠선 온라인유티비와 문서물놀이장, 마식령스키장과 미림승마구락부, 은하과학자거리와 위성과학자주택지구, 미래과학자거리와 려명거리, 과학기술전당, 유류자동병원과 류경안과종합병원,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며 단 한달동안에, 60여일만에 단숨에 기적적승리를 안아온 라선지구와 함북도북부

피해지역... 진정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된 이곳에서 인민들이 리치는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는 하늘땅을 진감하였고 이 감동적인 화풍은 원수님께서 써나가는 위대한 창조실록에 글문자로 수놓아졌다. 이렇듯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 고립압살책동이 더욱 악랄해지고 있는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으며 세계를 놀래우는 전변을 안아오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은 위대한 창조의 거장이다.

은 그이께서 세계앞에 높이 떠받들어 내세우고싶으신 인민의 존엄의 높이이다. 바로 그래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건축물들의 형성안으로부터 시작하여 시공과 마감처리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공정을 세심히 관심하고 이끌어주시는것이다. 바로 이때문이다. 113건의 문서물놀이장의 형성안을 비롯하여 590여건의 미래과학자거리형성안도, 1390여건이나 되는 려명거리형성안도 하나하나 지도해주시면서 현실의 낮과 밤을 보내신것도 오로지 인민을 위함에서였다. 미래과학자거리의 상징인 53층 고층살림집의 독특한 형성안이 나온것도, 예로부터 한지붕아래 모여살기를 좋아하는 조선인민의 생활습관을 반영하여 민족적색채가 짙게 설계된 평양양로린과 조선의 얼굴, 조선의 멋을 집약적으로 나타낸 평양국제비행장의 항공역사를 비롯하여 그 수많은 창조물들이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이 일떠설수 있는것을 안겨주고싶어하시고 그들을 세계앞에 보란듯이 내세우고싶어하시

는 어버이의 응심깊은 마음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 김정은영도자께서 앞장서 계신 강국건설의 대로를 따라 마주오는것은 인민의 기쁨이며 달아야 할 문패는 인민의 락원이다.》

모든 건축물들을 인민의 존엄을 대표할수 있게

어두운 집보다 밝은 집안의 모습이 밖에서 더 잘 보이는 법이다. 건설의 대번영기가 펼쳐지는 속에서 모두가 서로 돕고 이끌며 기적을 창조해나가는 공화국의 밝은 모습은 세상사람들에게 그대로 안겨준다. 투명한 그 모습이 그들에게 안겨주는 정의가 있다. 그것은 건축물의 수준에도 인민의 존엄이 비견다는것이다. 키움올하며 일떠서는 인민의 보금자리들과 문화정서생활기지를, 거기에 깃든 수많은 사연들이 이를 잘 말해주고있다. 이 땅에 일떠세우는 모든 건축물들을 세계에 없는 독특한 건

축물로, 세계적수준의 건축물들로 창조하여 인민들에게 안겨주시어 그토록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인민, 제일 좋은 우리 인민이 최상의 문명을 누리게 하자는것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일관한 창조원칙이고 그저 해줄수 있는만큼이나 아니라 하나를 해주어도 가장 좋은것을 가장 완벽하게 창조하여 인민에게 안겨주어야 한다는것이 그의 심중에 짝차있는 높은 요구성이다. 공화국에서 출현된 어느 한 도시의 갈래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하나하나의 건축물의 수준

은 높고, 세계적수준의 건축물들로 창조하여 인민들에게 안겨주시어 그토록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인민, 제일 좋은 우리 인민이 최상의 문명을 누리게 하자는것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일관한 창조원칙이고 그저 해줄수 있는만큼이나 아니라 하나를 해주어도 가장 좋은것을 가장 완벽하게 창조하여 인민에게 안겨주어야 한다는것이 그의 심중에 짝차있는 높은 요구성이다. 공화국에서 출현된 어느 한 도시의 갈래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하나하나의 건축물의 수준

은 높고, 세계적수준의 건축물들로 창조하여 인민들에게 안겨주시어 그토록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인민, 제일 좋은 우리 인민이 최상의 문명을 누리게 하자는것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일관한 창조원칙이고 그저 해줄수 있는만큼이나 아니라 하나를 해주어도 가장 좋은것을 가장 완벽하게 창조하여 인민에게 안겨주어야 한다는것이 그의 심중에 짝차있는 높은 요구성이다. 공화국에서 출현된 어느 한 도시의 갈래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하나하나의 건축물의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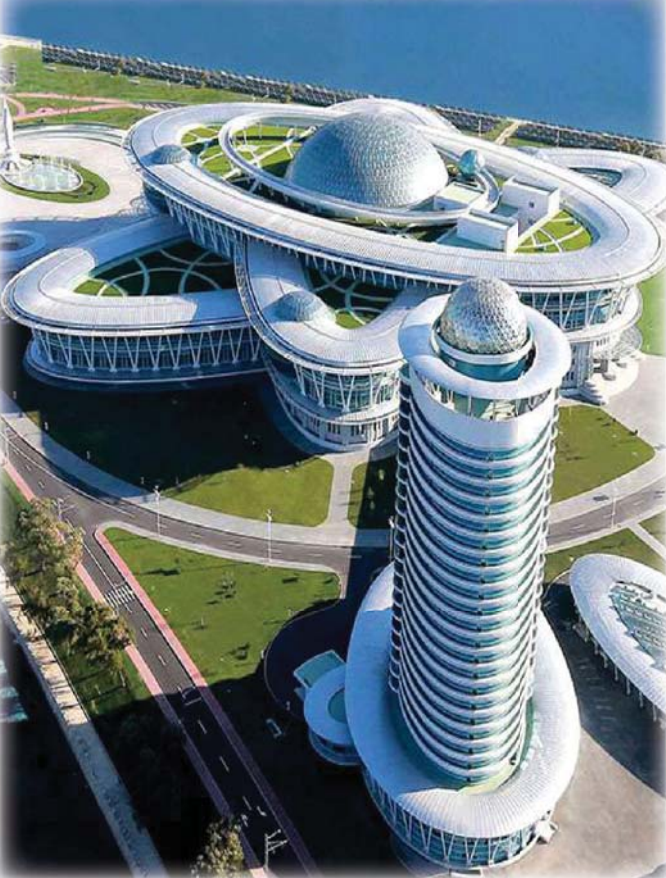
려명거리



삼자연시



마식령스키장



과학기술전당

착실한 사상리론의 거장

전민과학기술인재화에 관한 사상리론을 제시

지식경제시대인 오늘 모든 근로자들을 현대과학기술을 소유한 지식형근로자로 키우시려는것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뜻이다.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내놓으시고 실현해오신 온 사회의 인테리화에 관한 사상리론을 계승하고 심화발전시키시어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원대한 구상을 펼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주체102(2013)년 6월 어느 날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우리는 전민무장화의 구호를 들고 전체 인민을 그 어떤 침략자도 물리칠수 있게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세상을 둘러보면 인재를 중시하는 정치가도, 인재육성사업에 힘을 넣는 나라도

많지만 그 어느 나라의 정치가도 전체 인민을 과학기술 인재로 키울 그렇듯 원대한 구상을 내놓은적이 없었다. 오직 사회주의강국, 과학기술강국은 어느 한두명의 과학자, 기술자들의 지혜나 과학연구기관들의 연구성과에 의거하여 건설되는것이 아니라 온 나라 인민의 애국열의와 창조적지혜에 의거할 때 반드시 실현된다는 철리를 깊이 통찰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만이 제시하시실수 있는 탁월한 사상리론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주체102(2013)년 6월 평양기초식품공장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에서 원직강의실에서 원격교육을 받는것을 전민과학제라고 하여야 할것같다고 정의 해주시었다. 주체103(2014)년 12월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찾으신 그날에는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는데 우리나라가 선진공업국으로 도약할수 있는 지름길이 있다고 하시면서 종업원들이 현대과

학기술로 튼튼히 무장할수 있게 과학기술보급실을 더 잘 꾸리도록 하시었다. 과학기술전당 준공식장에 나오시여서도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추진하는데 한몫 단단히 할 인재들이 나라에 바다를 이루게 하여야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이렇듯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중히 여기시기에 그이께서는 역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전민과학기술인재화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대학졸업 정도의 지식을 소유한 지식형근로자로, 과학기술발전의 담당자로 준비시키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그 본질을 뚜렷히 밝혀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그 이후에도 불후의 고전적로작 《김일성-김정일주의적정신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나가기》,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시대적임무와 직맹조직들의 과업》, 《주체의 사

회주의위업수행에서 농업근로자동맹의 역할을 높일데 대하여》, 《현 단계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공화국정부의 대외외정책에 대하여》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도에 대하여 명백히 밝혀주시었다. 이렇듯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해 그토록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과 현명한 영도에 의하여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불길은 온 나라에 더욱 세차게 타번지게 되었다.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평양건축대학, 장쥬평양상업대학을 비롯한 중요대학들에 원격교육체계가 정연하게 세워져 근로자들과 일군들이 현지에서 일하면서 배우는 대학생이 되었으며 그 어디에나 과학기술보급점들이 훌륭히 꾸려져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필요한 지식을 배우고 터득할수 있는 환경과 조건

이 충분히 마련되어 온 나라가 말그대로 하나의 교정으로 변모되었다. 그런가 하면 전민과학기술인재화가 힘있게 추진되어 로동자박사, 로동자창의고안자들의 대렬이 나날이 늘어나고있는 속에 어느 단위에서나 과학기술의 힘으로 변혁의 앞길을 개척해나가는 인민의 확고한 지향을 느낄수 있고 지칠줄 모르는 탐구열을 안고 과학기술보급점들을 향하는 근로자들의 모습을 볼수 있다. 그이의 현명한 영도에 의하여 오늘 공화국에서는 과학기술을 중요한 국책으로 틀어쥐고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며 자체의 과학기술력향상을 키워 그들이 주도적, 핵심적역할을 해나가도록 하는것이 국공으로 되고있으며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위한 사업이 더욱 더 활기를 띠고 힘있게 추진되어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이 더욱 앞당겨지고있다. 본보기자 박주혁

후대사랑의 정치

오늘 공화국인민들은 온 나라 아이들의 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위대하고 자애로운 어버이가 되시어 해빛같은 사랑도 숭고한 현실의 로정을 가슴뜨겁게 품으로 후대들의 행복을 지켜주고 꽃피워 돌이켜본다.

국가의 제일중대사로

민족의 어버이를 잃은 크나큰 상실의 아픔속에 피눈물의 12월을 보내고 처음으로 맞이한 날 하셔야 할 일이 그토록 많으시고 찾으실 곳이 한두곳도 아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으시어 원아들에게 온갖 사랑과 배려를 들려주시실 줄 인민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었다. 그대로부터 몇달이 지난 5월, 온 나라를 열매게 하는 희소식이 전해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소년단창립절을 조국력사에 특기할 대경사, 전례없는 성대한 축전으로 경축하도록 하시었던것이다. 그처럼 품을 들이시고 심혈을 기울이시어 소년단원들을 위한 성대한 경축행사를 마련해주시고 조선소년단 창립 66돌경축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단체대회에도 몸소 참석하시어 《사랑하는 온 나라 소년단원동무들!》이라고 정답아 불러주시며 사랑

을 들이는 불같은 진정으로 이 땅의 아이들을 조선의 레일을 떠메고나갈 역군으로 키우시려는 결심과 의지였다. 2013년과 2017년에 열린 조선소년단 제7차대회와 제8차대회도 경애하는 원수님을 한차례에 모신 무한한 행복과 희열속에 이렇게 흘러갔다. 조국의 미래와 관련한 일이라면 아무런 자그마한 문제도 천만국사중의 제일국사로 여기시며 시간과 품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후대사랑의 뜻에 떠받들려 공화국의 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전반기12년제의무교육이 시작되고 《소나무》책가방과 《민들레》학습장, 《해바라기》학습품을 받아안고 부모들과 아이들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를 아뢰는 감격의 화폭들이 련이 펼쳐질수 있었다. (다음호에 계속) 본보기자 김영범

을 들이는 불같은 진정으로 이 땅의 아이들을 조선의 레일을 떠메고나갈 역군으로 키우시려는 결심과 의지였다. 2013년과 2017년에 열린 조선소년단 제7차대회와 제8차대회도 경애하는 원수님을 한차례에 모신 무한한 행복과 희열속에 이렇게 흘러갔다. 조국의 미래와 관련한 일이라면 아무런 자그마한 문제도 천만국사중의 제일국사로 여기시며 시간과 품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후대사랑의 뜻에 떠받들려 공화국의 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전반기12년제의무교육이 시작되고 《소나무》책가방과 《민들레》학습장, 《해바라기》학습품을 받아안고 부모들과 아이들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를 아뢰는 감격의 화폭들이 련이 펼쳐질수 있었다. (다음호에 계속) 본보기자 김영범